30년 신뢰 속 핀 상생 꽃, 새 30년 꿈꾸다

신뇨엔, 한국에 행복을

③ 한국 신뇨엔

신뇨엔(眞如苑)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은 단순한 지부 이상의 각별한 위상을 지닌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1600년 대승불교의 찬란한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제주도의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된 한국 신뇨엔의 역사는 어느덧 30여 년의 성상을 넘겼다. 초창기 낯선 일본 불교라는 시선을 딛고, 오늘날 서울, 부산, 창원,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수행 도량을 세우며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한국 신뇨엔. 그들은 어떻게 한국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까. 특히 부산불교연합회 가입 등 한국 불교계와의 깊은 연대와 동국대, 동명대 등 대학 지원을 통해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들의 행보를 심층 취재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진행하는 부산 연등회 제등행렬에 참가한 신뇨엔 신자들의 모습. 한국불교와 함께 하고자 하는 원력이 엿보인다.

1987년 제주의 작은 불씨, 등불이 되다

한국 신뇨엔의 시작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7년 제주도에 첫 포교원이 개설되었을 때, 신뇨엔은 소수의 신도들이 모여 경전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작은 신행 모임에 불과했다. 이어 1990년 서울, 1992년 부산에 잇따라 포교의 거점이 마련되었지만, 번듯한 법당 하나 없이 호텔 회의실을 빌려 합동 법회를 열거나 일반 가정집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일본계 종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신뇨엔은 요란한 거리 포교나 세 과시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감화(感化) 포교'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뇨엔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포교 전략이었다.

"저 집 사람은 신뇨엔을 다니더니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이 참 좋아졌다."는 점은 그 어떤 홍보보다 강력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던 가정이 웃음꽃 피는 곳으로 변모하는 실증적 사례들이 쌓이면서, 한국 신뇨엔은 '조용하지만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제 한국 신뇨엔은 한국인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깊이 밴 '수행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 정식 가입…한국불교 식구로

한국 신뇨엔의 현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신뇨엔의 부산정사를 중심으로 한 부산불교연합회 활동이다. 부산은 한국 불교의 수도라 불릴 만큼 불심(佛心)이 깊고 보수적인 지역이다. 이곳에서 일본계 종단이 지역 불교계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뇨엔 부산정사는 오랜 기간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그 문턱을 넘었다. 꾸준한 지역 봉사와 불교 행사 참여를 통해 신뢰를 쌓은 결과, 2015년경 부산불교연합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국의 지역 불교 연합 단체가 일본계 종단을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이례적인 사례로, 신뇨엔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한국 불교계의 '식구'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후 행보는 거침없었다. 신뇨엔은 연합회 가입을 기념해 발전기금을 쾌척하는가 하면, 부산 연등축제 등 주요 불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역 불교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 회장단 스님들을 일본 도쿄의 신뇨엔 총본산(응현원)으로 공식 초청하여 양국 불교의 우호를 다지는 가교(架橋)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불교계가 편견을 허물고 부처님의 법 안에서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동국대 등과 함께하는 '인재 불사'

한국 신뇨엔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해 있다. 그 중심에는 '청년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있다. 신뇨엔은 지난 2019년,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와 특별한 약속을 맺었다.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발전기금을 전달하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지원하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다. 실제로 신뇨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류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약속을 지켰다. 매년 전달되는 장학금은 동국대 불교대학 및 일반대학원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부산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다. 신뇨엔은 2017년부터 부산 동명대와 동아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에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동명대 재학생들의 '해외 불교문화 탐방'을 위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탄생한 종단이 한국의 대학들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장학금을 후원하는 것은, 신뇨엔이 한국 사회를 경쟁 상대가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진정한 '도반(道伴)'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한다.

교수불자연합회와 동행…불교 지평을 넓히다

신뇨엔의 지원은 단순한 장학금을 넘어 불교 학술 연구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신뇨엔은 한국 지성 불교의 산실인 교수불자연합회와 꾸준히 교류하며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뇨엔의 독창적인 수행법인 '제등호마(齊燈護摩)'나 '접심(接心)' 등을 현대 불교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학술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밀교가 가진 신비주의적 이미지를 벗고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한 실천 불교로서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이 밖에 지역 밀착형 나눔행사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정사를 중심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부산정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연시, 그리고 명절 때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 등에 어린이돌봄, 독거어르신, 무지개이웃 사랑 등등으로 '생활안정자금'을 기탁,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약속이다.

특히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이 진행하는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후원, 2025년부터는 대한불교청년회가 진행하는 만해백일장을 후원하는 등 국적을 넘어선 자비나눔 행보도 이어오고 있다. 신뇨엔의 한국불교계에 대한 후원은 그 꾸준함에서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신뇨엔의 정경 국원은 이러한 나눔 활동에 대해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봉사는 남을 돕는 시혜적인 활동이 아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의 완성'"이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서울정사와 제주포교소 역시 지역 환경 정화 활동, 자선 바자회 개최, 지역 어르신 돌봄 봉사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호흡하고 있다. 신뇨엔 신도들에게 봉사는 법당 안의 기도가 법당 밖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새 30년, '상생(相生) 공헌(貢獻)' 시대 열다

2026년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뇨엔은 이제 한국에서의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상생과 공헌'이다.

정경 국원은 "지난 30년이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는 인고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 신뇨엔은 청년 포교와 문화예술 후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처럼 유연하게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불처럼 뜨거운 자비심으로 얼어붙은 이웃의 마음을 데우는 한국 신뇨엔. 그들이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는 각자도생의 삭막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울림을 주고 있다. 지난 30년의 신뢰를 자양분 삼아, 한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피워올릴 '상생의 꽃'. 한국 신뇨엔이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노덕현 기자**



2025년 6월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를 후원한 신뇨엔.



사)일일시호일의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후원모습.



2025년 4월 산불 피해성금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2025년 1월 부산 연제구청에 설맞이성금을 전달했다.



동국대와 2019년 10년간 발전기금 전달 약정 모습.

